

『한민족어문학』 제80집 편집자의 말

제80집에 실린 논문은 총 11편으로 (한)국어교육 3편, 국어학 3편, 고전문학 2편, 현대문학 2편, 교양국어 1편이다. 본 호에 투고 된 논문과 게재된 논문을 통해 연구의 흐름을 진단해 보면 한국어교육 분야의 연구 성과가 두드러지며 교양국어 영역은 학문의 한 영역으로 안정되게 터잡고 있다. 본 호의 발간에 즈음하여 편집위원회에서는 학문의 전통 계승과 학문의 선도성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기획 논문 코너를 적극 마련하고 아울러 신진 연구자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다양한 학술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한다.

(한)국어교육 분야의 게재논문은 박혜숙의 ‘한국어 구어·문어 상호능력 신장을 위한 ‘-다’, ‘-ㄴ다/는다’의 교육 연구: 교육 단계 및 교육 내용의 범주 설정을 중심으로’, 홍인영의 ‘소설의 수사적 읽기 교육 연구를 위한 시론(試論)’, 김주연의 ‘대학 수학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경제 분야 외래어 학술 전문어휘 선정에 관한 연구’로 모두 3편이 실렸다.

박혜숙의 ‘한국어 구어·문어 상호능력 신장을 위한 ‘-다’, ‘-ㄴ다/는다’의 교육 연구: 교육 단계 및 교육 내용의 범주 설정을 중심으로’는 「표준모형」의 관련 내용 검토와 현행 한국어 교재 5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다’, ‘-ㄴ다/는다’의 적절한 교육 단계와 교육 내용의 범주 설정 및 교육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홍인영의 ‘소설의 수사적 읽기 교육 연구를 위한 시론(試論)’은 소설 읽기가 지닌 수사적 측면에 주목하여 관련 이론을 살피고 소설의 수사적 읽기 교육 방법을 ‘텍스트의 특성 및 의도 탐구로서의 수사 읽기’, ‘텍스트와

의 경쟁에 기반한 수사적 읽기, ‘불가능한 독서를 시도하는 해체적 읽기’의 세 가지로 모색하였다.

김주연의 ‘대학 수학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경제 분야 외래어 학술 전문 어휘 선정에 관한 연구’는 대학 수학 북한이탈주민이 필수적으로 익혀야할 경제 분야의 학술 전문어휘 가운데 외래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선정된 중요 외래어 목록에 대한 북한 대응어와 뜻풀이를 살펴봄으로써 효율적인 어휘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 있다.

국어학 분야의 게재논문은 김세환의 ‘청도 지역어의 ‘ㄸ, ㅅ, ㅊ’ 불규칙 어간 -풍각면과 운문면을 중심으로-’, 리웨이웨이·이선웅의 ‘한국어와 중국어의 수(數) 표현에 대한 대조언어학적 연구’, 송현주의 ‘중학생 과학 교육 방송에 사용된 비유 표현 연구’로 3편이 실렸다.

김세환의 ‘청도 지역어의 ‘ㄸ, ㅅ, ㅊ’ 불규칙 어간 -풍각면과 운문면을 중심으로-’는 청도군의 서부 풍각면과 동부 운문면의 ‘ㄸ, ㅅ, ㅊ’ 불규칙 어간 기저형의 지역적 차이와 변화 과정을 고찰하였다. 세 불규칙 어간 중에서 ‘ㅅ’ 불규칙 어간이 서부와 동부의 기저형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리웨이웨이·이선웅의 ‘한국어와 중국어의 수(數) 표현에 대한 대조언어학적 연구’는 대조언어학의 관점에서 한·중 수 표현 대조를 통해 정수 표현, 서수 표현, 개략수 표현에 있어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는지를 살펴보았다.

송현주의 ‘중학생 과학 교육 방송에 사용된 비유 표현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EBS 중학 과학 강의에서 사용된 비유 표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과학 담화에서의 비유 사용은 어렵고 복잡한 개념을 쉽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해 주며, 추상적인 내용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해 준다.

고전문학 분야의 게재논문은 김충희의 ‘신라 眞德王 代의 『太平頌』에 대한 再檢討’, 김용주의 ‘樊巖 蔡濟恭의 『載筆錄』에 나타난 觀風의 情調’

로 2편이 실렸다.

김충희의 ‘신라 眞德王 代の 『太平頌』에 대한 再檢討’은 太平頌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지은이, 창작 의도, 문학사적 위치에 대한 설명이 제각각 다른 점에 유의하였다. 그래서 내용과 형식을 분석하여 위의 세 가지 항목을 새롭게 검토해 보았다.

김용주의 ‘樊巖 蔡濟恭의 『載筆錄』에 나타난 觀風의 情調’는 조선 후기 영·정조 때의 정치가이며 문인인 樊巖 蔡濟恭의 『載筆錄』에 대한 연구서로써, 일반적인 번암의 화려한 관각문인적 성향과는 달리 사실적이고 토속적인 의경이 있어 연구과제로 선정하였다.

현대문학 분야의 게재논문은 윤현진의 ‘청소년소설의 디아스포라 연구 - 『마음이 사는 집』, 『농담이 사는 집』, 『나는 브라질로 간다』를 중심으로’, 김리안의 ‘소설 『사랑손님과 어머니』에 함의된 주요섭의 작가의식 연구’로 모두 2편이 실렸다.

윤현진의 ‘청소년소설의 디아스포라 연구 - 『마음이 사는 집』, 『농담이 사는 집』, 『나는 브라질로 간다』를 중심으로’는 2000년대 이후 출판된 청소년소설 『마음이 사는 집』, 『농담이 사는 집』, 『나는 브라질로 간다』 작품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의 의식과 청소년 디아스포라 인의 고뇌를 살펴보고 있다.

김리안의 ‘소설 『사랑손님과 어머니』에 함의된 주요섭의 작가의식 연구’는 당시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주요섭의 삶, 창작경향 등을 살펴보고 작가의식이 어떻게 함의되고 있는지 분석하여 이 작품을 새롭게 조명하고자 하였다.

교양국어 분야의 게재논문은 김현주의 ‘영화를 활용한 장르별 글쓰기 교육 방안’로 모두 1편이 실렸다.

김현주의 ‘영화를 활용한 장르별 글쓰기 교육 방안’은 학생들의 언어적

상상력과 감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영화감상 후 이를 편지, 일기, 시 등 다양한 장르의 글쓰기로 연계하는 방안을 찾아보았다.